

---

# 祝 辭

---

2019. 5. 2.(목)  
금융결제원(분당) 2층 대회의실

금융위원장 최 종 구

※ 5.3(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 I. 인사 말씀

---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신금융협회장님과 카드사 사장님들,

저축은행중앙회장님, 신탁중앙회장님,

상호금융 대표이사님들,

그리고 오늘 행사를 마련해주신 금융결제원장님,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7일 금융위원회는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을 비전으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논의할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카드이동 서비스,

제2금융권 및 증권사 숨은 금융자산 찾기 등은

올해 업무계획 목표 중 하나인

‘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주요 실천과제들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서비스들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편리함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 ‘국민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II. 소비자 보호를 넘어 소비자 만족으로

---

금융정책에서 ‘소비자’, ‘일반국민’이  
주된 화두로 떠오른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이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동양사태 등을 겪으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가 본격적인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의 속도와 깊이는  
매우 빠르고 깊습니다.  
소비자 보호가 화두로 등장한지 약 10년 만에  
금융이 수행해야할 주요 미션이  
소비자 보호를 넘어 ‘소비자 만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부실금융회사 정리, 불완전 판매 등  
‘문제적 요인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금융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선보이고자 하는 서비스들은  
우리 금융권이 국민들의 만족을 위해 내딛는  
또 한 번의 큰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 Ⅲ. 통합플랫폼 기반의 편리한 금융서비스

우리는 소위 ‘플랫폼 제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도  
플랫폼 비즈니스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그야말로 막강합니다.

※ 플랫폼 제국의 미래(스콧 갤러웨이)

-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세계 4대 플랫폼 업체(The Four)의 강점과 히스토리,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

플랫폼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누리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면  
폭발적인 파급력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은행, 제2금융권, 증권, 카드사 등  
모든 금융권이 연결되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인 금융결제원 페이인포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소중한 인프라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집으로 이사를 가듯이  
소비자 마음에 드는 계좌, 카드로의 ‘이사’를 편리하게 해주는  
계좌이동, 카드이동 서비스는  
이와 같은 플랫폼이 없었다면 제공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1년 이상 거래가 없던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찾아주고,  
그 계좌의 잔고를  
은행, 제2금융권, 증권사 등 어느 업권의 계좌이든  
국민이 원하면 옮겨주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역시  
세계 어디에도 없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플랫폼 제국은 막강한 인프라와 정보력을 기반으로  
스스로 그 편익을 누리지만,  
페이인포는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로 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페이인포가  
국민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드는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최근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이 살아남기 힘든  
독점적인 산업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페이인포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부러워하고,  
답고 싶은 롤모델이자  
궁극적인 경쟁 상대로 여긴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핀테크산업과의  
상생적 경쟁관계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이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 IV. 마무리 말씀

---

이번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담이  
단기적으로는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족, 친구, 동료 등  
일반 국민의 금융생활이 편리해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나아가 고객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서비스 도입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그간 계좌이동 및 숨은 예금 찾기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제2금융권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가 향상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및 접근성이 제고되고,  
결과적으로 제2금융권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서비스 개시까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미리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